

지역 소식통

정읍, 지속 가능

산림자원 육성 앞장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8개 분야 66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민간일자리를 진입이 어려운 취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모집했다.

지난 1월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면접을 거쳐 66명의 분야별 근로자를 최종 선발해 취업 계약체결에 대한 일자리와 재정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등의 참여 비율을 최대한 늘렸으며, 참여 종료 후 작업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자리 분야는 ▲공공산림 가꾸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덩굴류 제거단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방방제단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 생태관리원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CCTV 관제요원

차량절도범 검거 감사장 받아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차량절도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부안경찰서 감사장을 받았다.

부안경찰서는 지난 2월 17일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 사실을 접한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은 여러 CCTV 영상을 활용

해 피해차량을 역 추적해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출동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지난 2017년 3월 개소한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총 614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관제요원 12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범죄용의자 검거 및 교통사고 안전 대응,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등 범죄예방·해결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한빛원전 활동자료집 발간

## 고창 지역 농수축산물 등 54건 방사능 분석 수행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분소장 이나영)’가 출범 100여 일 동안 총 54건의 방사능 분석업무를 해내고 있다.

8일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에 따르면 고창분소가 출범이후 100일 간의 활동사항을 담은 활동보고자료집을 발간했다.

그간 고창분소는 원전 주변지역 환경시료, 고창군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관내 특산품(농·수산물) 등 총 54건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수행했고, 관련 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설명회를 고수면, 곰음면에서 열기도 했다.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

이 자리에서 고창분소의 역할과 기능,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등을 설명하는 등 고창군 지역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3개월간의 활동을

수록한 업무결과보고서를 발행해 이달 중 관련기관과 지역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올해는 맞춤형 방사능분석 수행, 언택트 시대에 맞는 온라인 방사능교육 매체물을 제작해 지역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방사능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비상시 효과적인 방재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는 지난해 10월6일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 2층에 문을 열었다.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고창군과 전북권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활동 강화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산업부 지침을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호응’

### 3년간 총 4억8천만원 투입

정읍시는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나섰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과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매년 1억6천만원 씩 3년간 총 4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 조건은 근속 연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입주기업당 10명 이내로

그 중 신규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3월 중 공고로 통해 참여기업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 ‘3월의 가볼만한 고창’ 미소사 선정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회장 김수남)가 ‘3월의 가볼만한 고창’으로 미소사를 선정했다.

고창관광발전네트워크는 고창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들로 결성된 민간단체다.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건 속에서도 개별 관광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에 착안해 매월 ‘이달의 가볼만한 고창’을 선정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미소사(微笑寺)’는 방장산 자락에 세워진 작은 절이다. 원래는 백제시대 세워졌다는 임공사(臨空寺)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미소사의 매력은 작은 꽃들이 가득한, 편안한 경내 분위기다. 산정턱에 정남향을 하고 들어선 덕에 별도 많



고창군 방장산 ‘미소사(微笑寺)’

이 들어오고 거친 바람도 뒷산이 막아주고 있어 봄꽃이 비교적 일찍 핀다. 절에 올라가면 복수초, 노루귀, 물매화, 산자고, 매발톱, 동강할미꽃, 노랑할미꽃 등 계절 따라 곳곳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귀한 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

원예종이 아니라 모두 우리 산하에서 볼 수 있는 자생화들이다. 꽃나무도 매화, 홍매, 복련, 개복숭아, 영춘화 그리고 미선나무나 희어리 같은 한국 특산종도 찾아볼 수 있다. 귀하다 싶으면 강인도도 멀다 않고 찾아가서 구해와 심은 스님의 정성 덕분에

미소사 입구에는 웰파크시티가 있어서 연계 여행지로 제격이다. 웰파크시티는 게르마늄 온천으로 유명한 휴스파와 대규모 편선단지인 힐링카운티 그리고 면역치료로 특화된 웰파크 병원 등이 들어섰다.

특히 스파와 피트니스, 요가 그리고 면역밥상 등의 전문화된 면역 프로그램이 코로나19와 맞물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시장이 지난 8일 산외면과 산내면을 시작으로 ‘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시민과의 공감 대화’ 스타트

### 유진섭 정읍시장, 13일간 모든 읍·면·동 순회

유진섭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며 감동시정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관소통이 단절되고, 경기침체로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찬 정읍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 시민과의 공감 대화는 읍·면·동 각각 1회씩 총 13일간 13개 읍·면·동 각계각층의 시민을 직접 만나 2021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읍 발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또, 시정 주요 핵심사업과 각종 시책 등의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민과의 공감 대화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시민과의 공감 대화는 ‘옹비하는 2021년, 향기 경제로 정읍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8일 산외면과 산내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유 시장은 시민과의 공감 대화 행사장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며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택시업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정신을 강조해 온 유 시장은 앞으로 13일 간의 일정도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

시민과의 공감 대화는 9일 북면과 장명동, 10일 수성동과 연지동, 11일 초산동·시기동, 12일 농소동·상교동, 15일 내장상동·응동면, 16일 칠보면, 24일 감곡면, 25일 입암면·소성면, 26일 고부면·영원면, 29일 덕천면·이평면, 30일 태인면·정우면, 31일 신대인면 순으로 이어진다.

13일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읍면동 업무보고와 시정 비전 영상 시청, 시민과의 공감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과 신성장동력 확보는 정읍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정읍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읍, 찾아가는 방문복지건강서비스 시행

부안읍(읍장 채종남)은 코로나19로 대면 복지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복지건강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날 부안읍은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와 함께 건강체크 및 귀반사 요법 등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야 보건의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 모 어르신은 “코로나19로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데 직접 방문하여 건강 체크도 해주고, 상담까지 해 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부안읍(읍장 채종남)은 “앞으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관리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